

2024년 10월 11일(금)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 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한국은행 경기본부·경기도, 「지역경제세미나」 개최

-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장정석)와 경기도는 10월 11일(금) '경기지역은 왜 전세사고에 취약한가? — 최근 전세사고 급증의 원인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지역경제세미나」를 공동개최
 - 이번 세미나는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의 개회사 및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의 축사와 함께 기조발제,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
- 두 세션에서는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정책대응 방안'(세션 1)과 '전세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세션 2)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
 - 지자체(경기도청, 수원시 등) 및 유관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산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연구기관(경기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금융기관 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

붙 임 : 「2024년 한국은행 경기본부·경기도 지역경제세미나」 개요*

* 행사 사진 등 주요 자료는 추후 별도 배포할 예정

문의처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이채린

Tel 031)250-0083 Fax 031)250-0113 E-mail research@bok.or.kr

"경기본부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지역본부-경기본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붙임)

「2024년 한국은행 경기본부·경기도 지역경제세미나」 개요

□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경기도는 2024년 10월 1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 강당에서 「2024년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

* 매년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학계, 지자체 관계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주요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로, 올해는 경기도와 공동주최하였음

○ 올해 주제는 ‘경기지역은 왜 전세사고에 취약한가? - 최근 전세사고 급증의 원인 및 제도개선 방안’으로, 최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고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경제·금융 제도 및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 전세사고로 인해 그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경기지역이 청년층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 단장은 축사에서 “전세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전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원인을 밝히고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음

□ 이후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기초발제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음

○ 이날 기초발제를 맡은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자혜 경제조사팀장은 “최근 경기지역 전세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전세사고가 집중된 지역들의 경우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100%를 초과하는 깡통주택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며, “전세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경제·금융 제도와 임차인 보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세션 1에서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예진 과장은 “경기지역에서 전세사고가 급증한 데에는 청년 인구유입 확대에 의한 경기지역 저가 임대주택 수요 증가, 임대인의 갭투자를 유발하는 연립·다세대 주택 가격형성의 특수성, 다주택 임대인의 낮은 자본여력,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향후 전세가율을 낮추고 다주택 임대인의 자본능력을 제고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금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사업자 정보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 세션 2에서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은 “현행 법률이 전세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있어 충분한 보호장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순위·대항력 보안을 위한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전세 피해자 대상 긴급 주거지원 등 전세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함을 강조하였음

-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지자체(경기도청, 수원시 등) 및 유관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산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연구기관(경기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금융기관 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션 1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준석 경인일보 기자가, 세션 2에서는 권지웅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신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참고)

2024년 지역경제세미나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09:30~10:00	참석자 등록
10:00~10:20	개 회 식 - 축 사 : 정 종 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 개 회 사 : 장 정 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 총 괄 사 회 : 이 호 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
10:20~10:30	■ 기조발제 : 최근 경기지역 전세피해 현황, 특징 및 제도개선 필요성 . 발 표 : 김 자 혜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장 - 좌 장 : 이 용 만 한성대학교 교수
10:30~11:20	■ [세션 1]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정책대응 방안 . 발 표 : 김 예 진 한국은행 경기본부 과장 . 토 론 : 김 덕 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장 경 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 정 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 준 석 경인일보 기자
11:30~12:20	■ [세션 2] 전세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발 표 : 박 기 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권 지 응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유 봉 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신 광 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12:20	폐회